

선물로 받게 된 바나나 맛 우유에 할머니를 생각하다

최유진

‘톡’ 하고 바나나 맛 우유 한 개가 문자선물로 왔다.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아이템이라 그저 바라보고 피식 웃고 말았다. 어제저녁 라디오를 듣다가 우연히 한 라디오 프로그램의 30주년 기념 에코백을 준다는 이벤트에 응모했다. 물론 당첨될 확률을 적었지만, 갖고 싶었던 에코백에 대한 열망을 표출한 것만으로 나에게는 소소한 즐거움이었다. 그렇게 잊어버린 일이다. 물론 에코백 당첨은 안 되었다. 그런데, 참가 기념으로 소정의 선물인 바나나 맛 우유 기프트콘을 받게 된 것이다. 핸드폰 액정 안에는 DJ 배철수 아저씨의 얼굴과 그 왼편에 나란히 보이는 바나나 맛 우유가 있다.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먹고 싶다면 편의점에 가서 직접 내가 살 수도 있는 먹거리이지만, 그 기프트 콘을 자세히 응시하면서 왠지 뭉클했다. 30년 동안 애청한 프로그램에서 내가 처음 응모했고 처음 받게 된 선물이다.

바나나인가? 바나나 맛인가?

바나나

맛

바나나 맛 우유

바나나 맛 우유를 자세히 보았다.

어릴 적 할머니 집 앞마당에 놓여있던 절구통 같기도 하고

둥글고 뽀얀 달 향아리 같기도 하다.

그리고 보니

얼마 전에 보았던 달 향아리가

바로 할머니 같아서

봐도 봐도 질리지 않았나 보다.

어릴 적에 잠시 할머니 손에 컸던 나는 할머니와의 추억이 많았다. 갑자기 툭하고 떨어진 이 바나나 맛 우유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내 추억을 소환할 줄이야.

할머니는 아침상을 차리기 전에 가끔씩 인근에 있는 시장에 다녀오시곤

했다. 그리고 나가시기 전 내 머리맡에 바나나 맛 우유와 작은 쪽지를 놓고 가셨다. 하얀 쪽지에 할머니의 글씨가 동글동글 적혀 있었다. 당신이 아침 일찍 시장에 다녀오니 이 우유 마시고 기다리라는 짧은 글이었다. 내가 아침 햇살에 눈 비비고 일어나 할머니가 안 계시는 걸 알고 놀라기라도 할까 봐 준비해 놓으신 할머니의 작은 배려였다. 아마도 내 인생에 있어 첫 번째 문자 약속이지 않았을까? 그 우유와 쪽지만 있으며 나는 울지도 않고 할머니를 담담히 기다렸었다. 빨대를 꽂아 쪽쪽 우유를 마시다 보면 할머니는 내가 지루해지기 전에 항상 집으로 돌아오셨다.

지금 생각해 보면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외할머니셨던 것 같다. 시장에서 돌아오신 할머니는 어김없이 찬 바람에 손이 얼어 안방 아랫목 이불속에 손을 넣으러 들어오셨다. 나를 보며 환하게 웃으시던 얼굴은 마치 박꽃 같았다. 할머니는 어릴 적 동네 어르신들에게 박꽃같이 예쁘다는 칭찬을 많이 들었다고 이야기하시고는 했다. 누구에게나 그 리운 소녀시절은 있다. 박꽃의 꽃말을 검색해 보니 ‘기다림’이다.

기다림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

내가 할머니를 기다리듯

할머니도 누군가를 기다렸을 것이다.

아, 할머니.

할머니는 당신의 남편을 한국 전쟁에 학도병으로 보내고, 피난을 가셨다고 하셨다. 어린 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덤덤히 해 주시며 눈물을 흘리셨던 기억도 있다. 뱃속에 아이를 잉태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렇게 유복자를 나오셨다. 하염없이 당신의 남편을 기다리며 언제나 돌아올까 마음을 졸이셨다. 당시 동네의 동사무소 서기는 외할아버지의 전사 통지서를 받아 놓고서 차마 새댁인 외할머니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얼마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할머니는 매일 동사무소에 가서 당신의 남편 소식을 물으셨고, 한참 후에야 전사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사연을 이야기하셨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었다.

할머니는 자신의 세월 동안 당시 기다림의 순간을 가슴 아프게 간직하고 계셨다. 당신은 자신의 아픔을 신앙으로 이겨내시며, 그 오랜 세월 동안 어린 손녀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신 것이다.

얼마 전 엄마가 지니고 있는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보게 되었다. 국가보훈

처장에서 국가 유공자인 외할아버지의 자녀 자격으로 받게 된 것이다. 어떻게 보면 외할머니가 남겨주신 유물과도 같은 녹색 증명서이다. 사진 속 엄마 표정은 담담하다. 그런데, 내가 어릴 적부터 담담하게 받아들인 가족의 상황이 지금은 웬지 모르게 아리고 슬프다. 지금이 할머니가 나를 돌봐주셨던 그 나이가 되어서일까? 수많은 세월 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몰려온다. 울봄 박꽃이 필 때에는 할머니를 생각하며 사진으로 찍어놓고 싶다.

이제 할머니는 안 계신다. 하지만, 내 기억 속에 남아 언제라도 나의 헛헛한 마음을 채워주신다. 나의 향수를 자극하고 눈시울을 붉어지게 하신다. 그렇게 언제라도 다섯 살의 어린아이로 돌아갈 수 있다. 지금도 나는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다.

바나나 맛 우유는 그때에도 있고 지금도 있다. 동네 편의점에도 대형 마트에도 고속도로 휴게실에도...

달달한 맛도 같고 뽀얗고 노란 색도 같고 푸짐하게 동그란 케이스도 같다. 내 마음에 남아있는 할머니도 같다. 내가 처음 먹어보았던 바나나 우유에 대한 기억도 변함없이 같다. ■